

winter 2010

또 하나의 Vol. 53

www.plankorea.or.kr

나 우리



Plan
Be a part of it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스카프, 가장 가치 있는 스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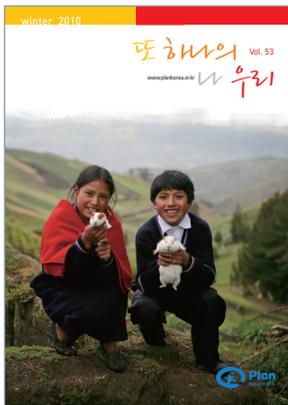
네팔 여성들의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스카프입니다.

플랜샵의 판매 수익금은 저개발국 어린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교육을 받고,
어린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또 하나의 Vol. 53

www.plankorea.or.kr

나 우리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73년 전통의 국제아동후원단체로 UN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기구입니다. 세계 최대 개발원조단체인 플랜은 비종교, 비정치, 비정부의 국제기구로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21개국을 후원국으로 하여 전세계 48개국 150만 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CONTENTS

04 지구촌을 간다 I • 플랜코리아 이선미 주임

06 지구촌을 간다 II • 후원자 김영선

08 내일을 생각하는 플랜샵

10 우리는 플랜가족 • 후원자 고점례

12 나눔의 행복 • (주)봉추푸드시스템

14 사진 속 플랜세상

16 Children Help Children!

17 플랜, 세계를 걸어간다 · 네팔

18 Plan Board

19 알려드립니다

플랜 NEWS

20 플랜코리아 소식

21 플랜 지구촌 소식

22 플랜과 함께하는 분들

- 일시 후원금, 긴급재해 후원금, 모금함, THE 좋은선물, 특별 후원금,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캄보디아에 희망을 세우다

양코르 왕국의 찬란했던 역사를 뒤로하고 프랑스 식민지를 거쳐 크메르루즈 정권에 의한 대량 학살, 세계 최대 빈곤국가 중 하나로 이어지는 가슴 아픈 현대사와 마주하고 있는 캄보디아. 이런 역사를 품고 현재를 살아가는 그곳의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안고 플랜코리아를 통해 학교 건축을 지원해오고 있는 EXR과 함께 캄보디아에 첫 발을 내디뎠다.

덥고 습하지만 지금이 1년 중 그나마 날씨가 서늘한 때임을 위안 삼아 뜨놈펜에서 늦은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는 메콩강을 따라 캄퐁참으로 향했다. 가게 문을 열고 좌판을 벌이고 어디론가 바빠 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 곳도 여느 도시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단지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를 뿐...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들어서자 전통양식의 나무 가옥들, 시냇가에서 낚시하는 사람들, 소를 치는 사람들, 뜨거운 햇살과 비를 머금고 자란 벼가 빼곡히 심어진 논이 시야에 들어왔다. 그제서야 이 곳에도 넘치는 생명력이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넘게 덜커덕거리며 가야 했던 예전에 비하면 그나마 지금은 절반은 포장도로로 바뀌어 나아진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도착한 학교에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과 교사들이 먼저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수줍어하는 표정이 역력한 데도 한 데 모여 손을 모으고 귀엽게 인사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 가슴 한 편이 몽클해졌다.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슬슬 더워지려는 듯한 날씨에 간단한 인사를 마치고 EXR에서 준비해간 티셔츠를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자 너도나도 앞다투어 티셔츠를 입어보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졌다.

플랜의 캄퐁참 사무소를 방문한 후 EXR이 지원한 프로젝트 스쿨로 향하는 길. 비포장도로였던 길을 1시간도

학교건립을 지원한 EXR 임직원들의 표정에서도 꼭 필요하고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지어졌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고, 그런 마음만큼이나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들의 따뜻함도 느낄 수 있었다. 가르치지 않았지만 대번에 어떻게 하는 경기인지 알아차리고 있는 힘껏 잡아당긴 줄다리기, 한꺼번에 여러 개 공으로 정신 없이 운동장을 뛰어다닌 단체 축구, 웃음꽃이 만연하여 팔이 아파도 자기 팀을 위해 열심히 돌리던 줄을 놓을 수 없었던 단체 줄넘기 등 함께 몸을 부대끼며 어울렸던 미니올림픽을 하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낯선 한국에서 찾아온 우리와 그곳의 아이들의 관계가 웬지 더 끈끈해진 것만 같은 마음이 드는 순간, 어느새 내 주변을 둘러싸고 함께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보인다.

물리적으로는 고작 몇 시간이었지만 아이들도, 우리도 그 시간은 순간이고 찰나였을 만큼 훌쩍 지나가버렸고 서로 아쉬움을 달래며 손을 흔들며 그렇게 첫 번째 지역의 일정을 마쳤다. 매일같이 먼 길을 걸어 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학교를 세워주고 또 직접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준 EXR은 분명 너무도 고마운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으리라.



다음날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 2호의 완공식에 참여하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렀다. 또 다시 울퉁불퉁 비포장도로를 달려 학교에 도착하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과 교

사, 지역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주민들로 운동장이 북적거렸다. 비록 외곽지역 작은 마을에 세워진 학교이지만 EXR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시내 어느 학교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학교가 지어졌음을 축하하며 그렇게 완공식을 마쳤다. 준비해간 티셔츠를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학교가 소외되고 열악한 환경 속의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이고 행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그리고 이들이 캄보디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멋진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아이들과 함께 학교 건물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시안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지, 아이들이 낯설어하면 어찌지 하며 걱정했던 것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색을 칠해가는 과정 속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어느새 벽화를 통해 교감을 나누고 있었다. 함께 페인트 색을 섞어 또 다른 색을 만들어 내고, 시안에는 없었지만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덧붙여진 그림들로 벽화의 결과물은 더없이 훌륭해졌다.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리던 아이들의 얼굴이 뿌듯함과 성취감으로 환해졌다. 부디 이 벽화가 캄보디아의 뜨거운 태양과 빗물에도 바래지 않고 오래도록 남아 아이들이 우리가 함께 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며 밝게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일정을 마쳤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외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의 아이들이 아무런 꿈도 없이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곳에는 경찰이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수단과 노력을 통해서 꾸준히 걸어가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 당장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 힘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캄보디아에 대한 안타까움을 기대감으로 바꾸어놓을 수 있는 소중한 원동력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들을 위한 지원과 관심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글= 플랜코리아 이선미 주임〉
〈사진= EXR 홍보팀〉

지구촌을 간다 II 말라위 후원아동 방문기



지난 봄, 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하면서 남들은 아프리카에서 몇 년씩 봉사도 한다는데 나도 뭔가 의미 있는 일 하나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부터 들어는 봤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해외아동 정기후원을 신청하게 됐고, 오가는 길이 멀고 험해 일정에 넣어야 할지 고민하던 남부아프리카 호수의 나라 말라위의 9살 꼬마 로피나와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여행 일정에 말라위를 끼워 넣고 플랜코리아에 후원아동방문을 신청했다. 이제 막 후원을 시작하고 친해지지도 않은 로피나와 만나겠다고 덜컥 신청 해놓고 나니 날 반겨 줄지, 너무 서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던 게 사실이다.



드럭투어 의 종착지인 빅토리아 폭포에서 로피나가 사는 말라위 릴롱궤까지는 각오하긴 했지만 정말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다. 짐바브웨 빅토타운에서 국경을 건너 잠비아 리빙스톤, 루사카를 거쳐 다시 또 말라위 국경을 넘어 수도인 릴롱궤까지 가는 길은 꼬박 이틀이 걸렸다. 다행히도 약속한 제 날짜에 로피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 내리고 다음날 아침 플랜 말라위 사무소와 만날 약속을 잡은 후, 릴롱궤 시내를 둘러봤지만 관광은 뒷전이고 로피나를 만난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까지 뒤척였다. '9살 여자아이와 친해지려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로피나가 영어를 조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아니, 날 반가워하거나 할까?'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는 온갖 걱정들로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다음날 아침을 맞았다.

날 데리러 나온 플랜 말라위 직원들과 함께 로피나가 사는 마을로 이동했다. 그나마 조금 변화한 도심을 벗어나니 우리나라 60년대 흑백 사진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흙벽에 짙으로 엮은 지붕이 덮인 집이 대부분인 마을로 들어섰다.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드디어 로피나네 집 앞에 도착했는데, 마을의 지도자 같은 분들과 30명은 죽히 되어 보이는 지역주민들, 동네 꼬마들까지 가득 모여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로피나와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마치 무슨 동네 큰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된 것 같은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다.



같은

색깔의 천을 허리에 두르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 주민

들과 십여 명의 아이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동네 아이들 모두 아마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온 이방인인 나를 반기고 환영해주는 것이라 느껴졌다. 아프리카 사람들다운 타고난 리듬감과 댄스 실력은 그저 바라보며 박수만 치는 나까지 흥을 돋게 했다. 옆에서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하던 수줍음 많은 꼬마 아가씨 로피나도 어느새 무리에 섞여 유연함을 뽐내며 함께 춤을 추더니 나에게 다가와 같이 춤을 추자고 한다. 춤추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는 나지만 로피나 옆에 서서 춤 동작에 어눌하게 박자라도 맞추며 함께 어울렸다. 아마도 이 먼 곳까지 찾아오는 손님이 그리 많지 않을지 모를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온 나의 방문이 다 함께 모여 기뻐하고 춤과 노래를 만끽하며 즐기는 날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이들의 환영행사가 더없이 고맙고 또 짝하게 느껴졌다.



우리

나라 옛 시골집의 사립문 같은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 작은 우물이 보였고, 벧짚으로 간이 칸막이만 해놓은 부엌에서는 로피나 어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과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다. 로피나의 아버지는 내 옆에서 연신 고마움과 반가움을 표시하시며 한국에 대해 궁금하셨던 것들을 물어보셨다. 함께 간 플랜 직원분이 그동안 이동 방문객 중 한국인이 다녀갔던 적은 없었다며 한국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을 거라고 귀뜸을 해주셨다. 내가 그들에게는 처음 만나는 한국인이라니 잘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준비된 점심을 빙 둘러앉아 함께 먹기 시작했다. 옥수수 가루를 뜨거운 물에 반죽해 떡처럼 만든 '시마' 라는 주식과, 같이 곁들여 먹는 채소볶음, 멸치 조림 비슷하게 생긴 말라위 가정식이었다. 이들을 따라 따뜻한 물로 손을 씻고 별다른 도구 없이 손으로 식사를 했다. 약간 멍멍한 맛의 시마가 그리 입맛에 맞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직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함께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이 조금은 어색한 우리 사이의 간격을 허물어주는 것 같은 모한 감정이 들었다. 내 옆에서 열심히 먹고 있는 로피나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저 큰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한국에서

받은 로피나와 가족들의 사진만으로 체격을 가능할 수가 없어서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한테 묻기도 하고 점원한테 사진을 보여주며 고심해서 사온 옷이 신기하게도 로피나와 여동생에게 너무 잘 맞았다. 남동생이 있는 줄 미처 몰라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로피나에게 주려고 했던 색연필을 주자 녀석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집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로피나네 가족사진도 찍어주고 작별의 인사를 나누었다. 습관처럼 굳어진 표정인지 인상을 쓰고 있는 듯한 표정의 로피나를 겨우 웃게 만들어 제법 잘 나온 가족사진 한 장을 얻어 현상해서 보내주기로 했는데 더 늦어지기 전에 서둘러 보내줘야겠다.

이제

겨우 6개월 된 우리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추억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힘들게 달려간 비포장도로가 하나도 피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나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대로 열심히 영어공부를 해서 직접 써서 보내주기로 한 로피나의 편지를 언제쯤 받게 될지 그 날이 너무도 기다려진다. ☺

(글,사진= 김영선 후원자)



가치 있는 소비, 내일을 생각하는 플랜샵!

플랜코리아의 공식 온라인쇼핑몰인 플랜샵이 오픈 하였습니다.



플랜은 개발도상국의 어린이와 그들의 가족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후원지역 주민들에게 교육, 직업훈련, 농기구 및 종자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플랜샵은 이러한 경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만든 물품을 판매 하여 고객들의 소비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후원자들의 구매가 후원지역 주민들이 자립을 위해 쓰여지는 아름다운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팔의 지역주민들이 직접 만든 스카프와 같은 플랜의 후원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수공예품과 함께 플랜의 로고티셔츠, 후드 티셔츠, 머그컵, 텀블러 등의 의류와 문구,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과 개인의 재능기부를 통한 상품 제작과 단체 및 기업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제휴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플랜샵을 통해서 가치 있는 소비를 실천해보세요.



플랜샵 www.planshop.co.kr 02)516-5107



내일을 생각하는 플랜의 경제지원 활동



“스카프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삶의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제 손으로 완성된 스카프를 볼 때마다 저도 이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루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제 아들과 딸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 소나 사다 (42) -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다는 사실과 가난을 그대로 물려줘야 하는 현실이 제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루 하루가 즐겁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 만가리 데비 (35) -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네팔의 여성들은 사회문화적인 인습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글을 읽을 줄 아는 여성이 30%에도 못 미칠 만큼 문맹률이 높고, 경제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란 단순한 소득증대의 의미를 넘어서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플랜은 소나와 만가리와 같은 네팔 빈곤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훈련을 받는 동안 아이들은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여성들은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나려는 의지와 자립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도 네팔의 여성들은 내일을 향한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스카프를 만듭니다.



Plan Family

Interview

후원자 고점례



배고프고 힘들었던 모진 시절을 오로지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한복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아 부으며 오랜 길을 걸어온 대한민국 5호 한복 명장 고점례 후원자. 바느질로 육남매를 키워낸 후원자님의 주름진 손에는 그간의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지만 모처럼 찍는 사진에 예쁘게 나와야 한다며 정성껏 한복을 차려 입고 나오신 모습에서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넘치는 생기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다.

‘고운선 우리옷’. 이름이 참 예뻐요. 처음 한복 일을 시작하신 게 언제세요?



그때는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지 못한 시절이었으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옷을 만들어보고 좋아하곤 했어요. 당시 여러 선진국에서 온 구호품 중에 옷가지를 가지고 와서 조카들 입을 한복을 만들어주었죠. 열아홉에 시집을 와서 그 때부터 계속 한복 바느질만 해왔어요. 운선(雲仙)은 얼마 전 돌아가신 남편이

지어준 제 호예요. 1960년 현대한복으로 시작해서 1980년에 지어준 호를 붙여서 지금의 고운선 우리옷이 됐어요.

지난 6월 방송 보시고 플랜코리아에 후원 신청해 주셨죠? 일정치 않은 수입으로 매달 정기 후원금을 내시기 부담스럽지는 않으세요?

내 형편도 그리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육남매를 키워내느라 정신 없이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작년에 갑상선 암이 생겨서 처음으로 병원을 다 가봤죠. 지금도 계속 치료 중이지만 그러는 와중에 방송에서 외국의 가난한 아이들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더 절약해서 좋은 일에 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한 달에 9만원

나오는 노령연금에서 내는 작은 도움이 한날 먼지만 못하더라도 그게 라오스라는 나라에 사는 11살짜리 그 꼬마에게 희망이 될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아무도 모르게 혼자 시작했죠. 자식들에게 언젠가 내가 후원하는 아동을 이어서 할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한복과의 인연이 60여 년이세요. 그 동안 걸어오신 길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으셨을 텐데, 돌아보기에도 먼 길을 걸어오셨어요. 어떠신가요?

19살에 시집을 와서 샅바느질부터 시작해 한복 만들면서 자식들을 다 키워냈습니다. 집 팔고 논 팔아서 자식 가르치던 시절 가진 거라고는 한복 만드는 기술뿐이었는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제 자신이 참 용감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뿌려놓은 씨이니까 내가 가꿔야 된다는 정신으로 가시밭길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온 것 같아요. 너무 힘이 들어도 내가 눈물을 보이면 자식들 맘이 약해진다는 생각에 견디고 버티으며 그렇게 가난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지금은 감사할 뿐이에요. 지금도 그 시절 힘든 시절 바느질 하면서 부르던 노래들을 습관처럼 불러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고 말고, 한 오백 년 살자는데 웬 성화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나온 그 시절 기억에 잠기신 듯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 몇 소절을 부르셨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 직장을 잡기 어려웠던 남편 때문에 평생을 자식교육과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후원자님 얼굴에 고된 세월의 어두운 흔적보다는 오히려 보는 이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밝은 기운이 넘쳤다.

삶에 대해 긍정적이고 밝은 태도가 몸에 베인 것 같으세요.

예전에 자식들과 무등산을 올라갔던 때가 있었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라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조금만, 조금만 더 가보자. 정상에 오르면 기분이 얼마나 좋을지 한번 생각해봐.” 그렇게 함께 산을 넘었어요. 때로는 눈물과 땀으로 몸을 적셔도 앞으로 만나게 될 것들을 상상하며 웃음을 짓죠. 웃음같이 좋은 게 없잖아요. 내가 집에 가서 굶는 한이 있어도 밖에서는 웃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 굶는다는 생각으로 필사적으로 웃으며 살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훨씬 먼저 인생을 사신 분으로서 후원아동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 예쁜 한복도

만들어서 아동방문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질문에 당장이라도 신청하실 것 같이 말씀하십니다.

거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나요? 거기 갈 때 가져갈 것도 많아요. 전부터 계속 시청이나 행정기관을 통해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와 같이 한복 일을 하는 우리 첫째 딸이랑 같이 배넛저고리나 손사개, 발사개, 턱받이 만드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 큰 박스 안에 쌓여 있는 배넛저고리가 미혼모나 다문화가정 같은 곳에 기부되는데요, 라오스에 갈 때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지금처럼만 건강하셔서 조만간 꼭 방문하시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녀인 신경희씨가 후계자로서 전통복식을 이어가시죠? 함께 제자 양성도 계속하고 계시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한복의 소비는 아시다시피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그만큼 전에 비하면 한복을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어요. 게다가 간판에 “명장”이라고 쓰여있으니 사람들이 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주 찾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나이에 무슨 욕심을 부리겠어요. 그저 그 가치를 알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평생 몸부림치며 배워온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 싶어요.

앞으로의 꿈, 그리고 어떤 후원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도전하고 싶습니다. 내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가진 것들을 끌어 안고 사는 것보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즐겁게 살아 가렵니다. 라오스에 있는 아이에게도 때로는 눈물로 산을 넘고 씨앗을 심는 날이 있어도 성실하게 가다 보면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런 희망 하나 붙잡고 저도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어렵고 못사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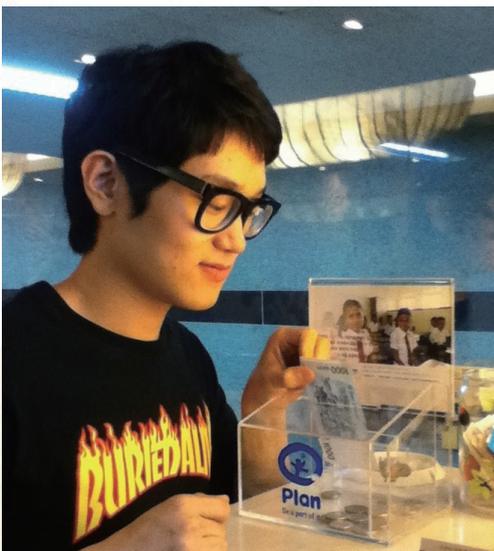
鳳雛 (주) 봉추푸드시스템 사회공헌 소개

10년간 고객과 나눈 감동을 안고

네팔에 희망의 씨앗을 심다.

2000년 대학로에 안동찜닭으로 처음 문을 열었던 봉추푸드가 올해로 10년을 맞이했다. 찜닭이라는 단일 품목으로 오랜 시간을 지켜온 장수 브랜드로서 그간의 10년이라는 세월은 더욱 의미가 있다.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가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장준수 대표는 긴 시간을 함께 지켜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플랜코리아를 통해 네팔에 두 개의 학교를 건립하기로 했다. 오로지 한가지 메뉴의 맛과 정성만을 생각하며 10년을 달려온 그 노력의 결실이 더욱 아름답게 맺어지게 되는 순간이다.

“학교는 지어 놓으면 계속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졸업생들이 배출되면서 새로운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곳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뿌려 놓은 씨가 그 나라에 덕이 되는 인물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 지난해 직원들과 가맹점식구들과 함께 다녀온 차문화 체험 캠프. 한 배를 타고 가는 직원들에 대한 걱려는 봉추찜닭이 장수할 수 있었던 큰 요인이었다.

2000년 처음 1호점 간판으로 걸었던 안동찜닭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던 탓에 “봉추찜닭”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후 그 인기를 타고 수많은 유사업체가 생겨나면서 2001년에 서울에만 무려 1천여 개의 찜닭 매장이 있었다고 한다. 세월의 풍파 속에서 겨우 몇 개 매장만 살아남는 동안에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의 첫 시작에 선두주자로 나선 봉추찜닭은 모든 가맹원들과 한 배를 타고 간다는 마음자세로 초심을 잃지 않았다.

“불교에 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행할 때는 베푸는 자도, 받는 자도 모두가 본질적으로 공생하는 것이므로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10년을 기념하며 우리끼리 자축하는 것 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더욱 이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소비자들의 가슴을 울리는 감동 서비스를 위해 고객들에게 나가는 사은품 하나하나에 대한 선택과 디자인에도 세세한 신경을 쓰는 장준수 대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이어간다면 10년, 20년 장수할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내온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와 격려가 미래를 준비하고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평소 차를 즐기는 그는 직원들과 우수 가맹점식구들과 함께 차문화 체험 캠프를 다니며 결속을 다지기도 한다.

“무엇이든지 처음이라는 것은 오래도록 기억 남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봉추찜닭이 찜닭의 원조로 기억되듯이, 내팔에 세워질 학교를 통해 그곳의 희망이 널리 퍼져나가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봉추찜닭은 현재 전 매장에 모금함을 비치하고 고객과 함께 네팔 어린이들의 꿈을 설립해 나가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에 나서고 있다. 그곳에 뿌려진 씨앗이 머지않아 맺게 될 열매를 기대하며 그들에게서 희망을 본다.



▲ 마을의 학생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낡은 네팔 도하리와 암렉간지 지역의 학교 정경. 봉추푸드가 두 지역에 건립할 초등학교는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교실과 식수시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봉추푸드시스템은 2000년 대학로에 1호점 “안동찜닭”을 오픈하면서 경북 안동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찜닭을 서울에 입성시킨 원조브랜드이다.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1호점 오픈 당시의 경영 철학과 맛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봉추찜닭”은 원조의 자존심을 유지해오며 2010년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전통과 웰빙이 결합된 고유한 이미지를 확립해 찜닭이라는 단일 품목으로 장수브랜드의 입지를 굳건히 해오고 있다. 현재 전국 104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1호점과 똑 같은 맛과 서비스로 원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Plan World Photo Gallery



태국 모켄족 어린이들

머리를 감고 있는 두 남매는 태국 모켄족의 어린이들입니다. 모켄족은 태국 남부의 해안가와 인근 섬에서 고기잡이를 주업으로 생활하는 소수민족입니다. 출생등록조차 하지 않고 문명과의 거리를 둔 채 그들만의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켄족 마을의 어린이와 주민들은 사회적 혜택과 관심에서 소외된 채 고립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어린이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과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플랜은 앞으로 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조개잡이는 모켄족의 주요 수입원입니다. 남자들이 잡아온 조개를 마을의 여자들이 손질해서 인근 시장에서 판매합니다.

이동도서관이 오는 날만 기다려요!

루시아가 살고 있는 동티모르의 마을에 일주일에 한번씩 플랜의 이동도서관이 찾아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이곳 어린이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동화책과 장난감, 스캐치북이나 악기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이 마을에 오는 날 이곳 어린이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생기가 넘쳐 보입니다. 플랜은 이동도서관과 함께 아동친화적 공간을 마련해 마을의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 놀 수 있도록 돕습니다.



수도 달리의 난민캠프에 찾아온 이동도서관 차량에 부착된 총기소지금지를 알리는 팻말은 아직 아물지 않은 동티모르의 아픈 상처를 떠오르게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식수!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깨끗하지 않은 물로 인해 감염된 각종 질병으로 생명을 잃는 어린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부족한 위생관념과 고질적인 식수부족으로 더러운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요 원인입니다. 플랜은 아프리카의 이러한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식수의 공급을 위해 급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방법과 함께 보건·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니비사우의 바파타지역은 플랜의 식수지원 프로젝트가 행해지기 전에는 전세계에서 수인성질병의 감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간 지속적인 플랜의 활동으로 마을 곳곳에 우물과 식수대가 설치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토고의 어린이들이 열심히 펌프질을 하며 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플랜이 마을에 설치한 우물을 통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조금씩 희망을 봅니다.

나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갈 거예요!

도미니카공화국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의 모습과 지켜져야 할 권리에 대한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둘러싼 환경에서 그들의 안전과 권리를 가장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마땅히 지켜져야 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플랜은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어린이들의 인권보장과 권리향상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손으로 색칠해나가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과 자신감의 확립, 그리고 마음껏 공부를 하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세상, 도미니카공화국의 어린이들이 꿈꾸는 소박한 삶의 모습입니다.

너의 담장이 되어줄게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기 위해 정해진 틀 안에서 늘 해 오던 그런 거 말고, 우리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춘천여자고등학교 학생회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지난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학급과 해외아동의 1대1 결연이 시작되었다. 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실시한 결과 아동후원에 가장 많은 관심을 표한 학생들의 의견을 따라 신중하게 결정되었다. 각 반별로 40여명 되는 학생들이 한 달에 천원씩 내는 후원금이 모여 춘천여고 각 반의 이름으로 결연아동에게 전달되고 있다.

지난 여름 축제에는 후원하는 아동의 사진을 담아 영상을 만들어 보이고 각 반별로 후원아동에게 편지쓰기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축제가 끝난 중간 설문조사에서 나온 학생들의 문의사항에 일일이 답변을 적어 그들의 후원금이 플랜코리아를 통해서 후원아동에게 어떻게 쓰

여지는지에 대한 설명문을 전교생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

초반에는 의도치 않은 많은 오해들로 곤란한 적도 있었고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열심과 노력이 후원아동에게는 진심으로 전달될 수 있으리라 믿으며, 그렇게 시작한 인연이 내년에 새롭게 조직될 학생회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결연후원금 외에 매달 조금씩 남는 돈을 모아 연말카드 보내기 행사에 전 학급이 신청을 하고, 또 연초에는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할 계획이다.

학교 담장 너머로 더 큰 꿈을 키우고 해외의 빈곤 어린이들에게 튼튼한 담장이 되어주고 싶다 말하는 이곳의 청소년들이 미래의 희망이 될 날을 함께 그려봅니다. ☺

CHILDREN HELP CHILDREN!

학교와 학급에서 어린이들의 꿈을 지원해주세요.

빈곤과 식량부족, 아동노동, 학대, HIV/AIDS 등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에서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학교, 학급과 함께 1대1 결연 / 커뮤니티 결연 / 학교자매결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나눔에 동참해보세요.

플랜코리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가치관과 리더십을 배양하고 지구촌 나눔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세계시민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학교/학급/동아리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메일 hanjh@plankorea.or.kr 전화 02) 545-4628 담당자 한지혜

세계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이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플랜, 세계를 걸어 가다

플랜의 48개 후원국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를 통해 후원국과 플랜의 활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팔 (नेपाल, Nepal)



네팔의 기초 정보

국가명 : 네팔 연방 민주 공화국	교육제도 : 초등학교7년-중학교3년-고등학교2년-대학교
수도 : 카트만두	문맹률 : 57%
인구 : 약 2,952만 명	평균수명 : 60.94세 독립기념일 : 1728.12.21
종교 : 힌두교 81%, 불교 11%, 이슬람교 4%	국경일 : 다사인 축제 9월27일~10월10일(네팔력)
언어 : 네팔어	시차 : 한국보다 3시간 15분 늦음

네팔 속으로

네팔의 장애인구는 전 국민의 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엄격한 신분제도와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네팔의 장애아동들은 교육과 치료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가 전생의 죄에 대한 업보라 여기는 악습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장애아동들이 숨어 살거나 집에서 묶여 생활하며 식사와 용변을 그 자리에서 해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플랜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에게 보조기구와 수술을 지원하고, 소아마비약이나 비타민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정부와 협력하여 네팔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다양한 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네팔의 교육환경

네팔의 교육제도는 초등 7년, 중등 3년, 고등 2년, 대학교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육부의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네팔 정부가 학교 설립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실시하고 있어 교육 목적이 아닌 돈벌이 수단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업체들이 학교를 무분별하게 세우고 있는 문제가 심각하다. 또한 네팔의 교사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재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이다.

HOT ISSUE

네팔의 여성운동가 코이랄라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되다!

성노예로 학대 받는 여성들의 구세주인 네팔의 여성 운동가 아누라드하 코이랄라(61)가 미국 CNN방송에서 선정한 ‘올해의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코이랄라는 여성인권단체 마이티 네팔을 통해 1만 2천 명 이상의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에게 교육,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안식처까지 제공한 공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코이랄라는 인신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며 우리 딸들을 위해 인신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엔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상금 10만 달러(약 1억 원)는 마이티 네팔의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네팔에서 플랜이 하는 일

미란푸르

- ▶ 노동착취를 강요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지원센터 및 전문가 상담 지원
- ▶ 어린이 라디오 프로그램 참여활동

리우타이트

- ▶ 소액금융과 생계사업 지원
- ▶ 일본뇌염백신 접종 및 무료 건강검진, 어린이 시력검사 실시, 에이즈캠페인

방케

- ▶ 120여 개의 보육원 건설 및 폭력없는 교육 사업 실시
- ▶ 10곳의 보건소 지원 및 산모교육

모랑

- ▶ 청소년 여자 축구, 크리켓 대회 개최
- ▶ 여성지역연맹을 통한 여성에 대한 인식 개선사업

바라

- ▶ 장애아동을 위한 보조기구 지급 및 수술, 약품 지원
- ▶ 학교 건립 및 교보재와 장학금 지원

순사리

- ▶ 468개 가정에 화장실 건립 및 161개 우물 건설
- ▶ 가족치료 지원 및 임업과 버섯재배를 통한 수입창출 지원

다음 2011년 봄 소식지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연말연시를 만들어주세요!

후원자나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기부 & TAKE!

하나, 함께해요! 아동후원

소중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함께하는 나눔을 통해 더욱 커다란 삶의 행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 후원자님의 추천으로 10명 이상의 아동결연이 이루어진다면, 두 분을 선정해 플랜의 해외 사업장 방문 기회를, 3명 이상 결연이 이루어진다면, 플랜 후드티셔츠를 드립니다.

둘, 한명 더 후원해주세요!

후원자님에게 두 배의 행복을 안겨줄 또 다른 만남을 시작해보세요.

* 추가 아동후원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플랜샵에서 판매 중인 머그컵을 드립니다!

셋, 아주 특별한 만원을 더 후원해주세요!

후원아동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실천, 어렵지 않습니다!

* 만원의 특별후원금을 신청하신 모든 분들께 플랜샵에서 판매 중인 카드지갑을 드립니다!

▶ 선물은 캠페인이 종료되는 2월 이후 일괄 배송 드립니다.

내 생애 가장 따뜻한 선물



개발도상국의 빈곤한 지역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직접 선택해 선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의 후원입니다. 가장 따뜻한 연말연시를 지금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학용품	아프리카 과일수 5그루	수단 양 보내기	이동도서관

* 캠페인의 자세한 내용 확인과 후원신청은 플랜코리아 홈페이지(www.plankorea.or.kr)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홍보대사 배우 어민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아프리카에서 온 희귀 해양동물 매너티가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전시 1주년,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위촉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2월 10일, 코엑스 아쿠아리움의 가장 인기 있는 전시종 매너티가 건강한 모습으로 1주년 생일 케이크를 선물 받았습니다! 플랜코리아의 아프리카 홍보대사로서 성실히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을 축하하고, 관람객들의 소중한 성금과 아쿠아리움의 기부금을 플랜코리아에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랜코리아와 함께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오상진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매너티에게 보내는 축하와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훈훈한 분위기였습니다.

지난 1년간 매너티를 통해 후원을 받아온 기나의 두 어린이 시아 펠릭스와 시아 미나타는 많은 분들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와 함께 하는 'The 좋은 여행'

플랜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플랜 후원지역 방문이 2011년 진행됩니다! 그 동안 혼자 아동 방문하기를 망설이셨던 분들, 플랜의 활동을 직접 보고 싶으셨던 분들, 공정 여행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팔 아동을 후원하고 있지 않으셔도 참가 가능합니다.)



- ▶ 기간 : 2011년 2월 14일(월) ~ 2월 18일(금), 4박5일
- ▶ 지역 : 네팔 마관푸르 사업장 (후원 아동 번호 239 지역)
- ▶ 모집인원 : 20명
- ▶ 모집기간 : 2010년 12월 8일 (수)~선착순 마감
- ▶ 활동내용 : 네팔 마관푸르 지역 사무소 방문, 후원 아동 및 마을 방문, 프로젝트 참여 및 문화 체험, 지역 명소 방문, 공정무역 프로그램 참관
- ▶ 참가비 : 180만원
(항공비, 숙박비, 식비, 현지교통비, 프로그램 진행비, 비자 및 여행자 보험료 등 포함)

항공료	약 120만원	숙식 및 차량	약 30만원
프로그램 진행비	약 10만원	사전 준비 및 티셔츠	약 7만원
1일 투어비	약 6만원	비자, 여행자 보험 및 예비비	약 7만원

* 환율 및 현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작성 후 여권 스캔본과 함께 이메일로 접수 (Email: kno@plankorea.or.kr)
- ▶ 문의 : 02) 790-5436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plankore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해주세요

2010년도 기부금 영수증부터 국세형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해드립니다!

*2010년도 기부금 영수증부터 우편으로 요청하신 분만 우편발송 됩니다.

2011년 1월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2010년도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게 되어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등록이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등록 방법

1.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개인정보 → 등록
2. 플랜사무실로 연락 ☎ 02) 790-5436

* 후원자가 여러 명일 경우, 플랜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분과 주민번호를 확인해 주세요.

기부금 유형은 지정기부금(40)으로, 2010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 - 한도 내의 법정기부금 - 한도 내의 특례기부금 - 한도 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20%

작은 실천으로 큰 사랑을 나눠주세요!

하나.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또는 플랜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출력한다!
둘. 후원금 납부방법을 지로에서 자동이체나 신용카드로 변경한다!!
우편비를 절약하여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내줄 수 있답니다^^
변경방법 ☎ 02) 790-5436

플랜코리아 소식

한국미술협회 작가들과 함께 “행복을 주는 사람들展” 개최

플랜코리아를 통해 아동결연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미술협회의 소속작가들이 지구촌 빈곤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전시회 “행복을 주는 사람들”에 참여했다. 한국화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미 있는 전시회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진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9일까지 계속되었고, 플랜코리아의 후원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의 발걸음이 있었다. 전시를 통한 작품의 판매대금은 플랜이 후원하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의 교육사업을 후원하는데 기부되었으며, 판매되지 않은 전시 작품은 플랜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



세인트 에피엔스, 태국 여아 돕기 주얼리 행사 마련

주얼리 브랜드 세인트 에피엔스는 10월 11일부터 나흘간 태국 치앙라이의 여아와 여성들을 위한 직업교육학교 건립 모금을 위한 주얼리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해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앞세워 지구촌 빈곤여아들을 돕기 위한 행사를 가졌던 것에 이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성매매나 인신매매로 인해 고통 받는 치앙라이 소수민족 여성들을 위해 주얼리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플랜코리아에 기부했다.



세계빈곤퇴치의 날 기념 거리 캠페인 진행

10월 17일 유엔이 지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플랜코리아의 대학생 봉사단 플랜클럽이 명동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했다. 플랜의 Stop Child Poverty 캠페인과 연계한 거리 행사는, 지구촌 빈곤을 막기 위한 세계 정상들의 약속 ‘새천년개발목표’ (MDGs)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과 캠페인 내용을 알리는 생수를 나눠주는 등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거리 캠페인의 소식은 플랜코리아 트위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으며, 모금된 후원금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빈곤을 막기 위한 캠페인에 기부되었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도금 전달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지원 전문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국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개발도상국 모자보건 관련 사업을 공모해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9일 보조금을 전달하는 자리를 가졌다. 플랜코리아는 세네갈의 생루이 지역의 5세 미만 어린이 및 가임기 여성들의 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지역의료서비스 역량 강화와 말라리아 등 각종 질병예방 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보건의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내년 10월까지 12개월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EXR, 제2호 프로그레시브 스쿨 완공식

2008년 캄보디아에 제1호 EXR 프로그레시브 스쿨을 건립한 EXR 코리아는 지난 10월 완공된 캄퐁참 지역의 제2호 스쿨을 방문했다. EXR의 민북기대표와 임직원, 그리고 EXR-플랜클럽 봉사단이 함께한 이번 방문 기간 동안 학교 벽화를 그리기와 미니올림픽 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바자회를 통해 모금된 수익금으로 구입한 학습품을 학생들에게 전달하였다. 건립된 1,2호 스쿨을 통해 학생들을 포함한 1천여 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의 기회와 식수와 도서관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Because I am A Girl 거리 캠페인 진행

청소년 봉사동아리 The Change는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개발도상국 여아와 여성들의 상황을 알리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목동에서 Because I am A Girl 거리캠페인을 진행하였다. 또한 경남 진해에서도 플랜의 BIAG 캠페인을 홍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분홍 리본을 묶어주는 The Change의 활동이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The Change 네이버 카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플랜 지구촌 소식

인도네시아, 머라삐 화산 폭발 피해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중앙에 위치한 머라삐 화산이 지난 10월 말 폭발 해 3백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 머라삐 화산은 처음 분출한 이후 연일 지속된 폭발로 수많은 사상자가 계속 발생했으며, 화산재에 가려 보이지 않던 사체들이 발견되면서 사망자 수가 늘어가고 있다. 화산폭발로 인한 위험지역이 점점 확대되고 엄청난 수의 피난민들이 새로운 대피소를 찾아 이동함에 따라 이들을 위한 임시대피소와 긴급구호물품들에 대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플랜인도네시아는 2개월 긴급구호프로그램을 세워 1천6백여 가구의 8천명 이상의 주민들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담요와 매트, 위생키트 등 비식량기호품의 분배와 함께 이동식화장실과 임시학교 등을 긴급배치하기도 했다. 화산의 움직임이 약화됨에 따라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예정이다.



아이티, 콜레라 발병 비상

대지진의 참사를 딛고 재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이티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콜레라로 인한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1만3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콜레라 감염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도 2만 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11월 초 아이티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토마스가 피해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임시캠프에 영향을 미치며 더욱 큰 피해를 유발해 현재까지 펼쳐온 지진 이후 재건사업의 성과에 큰 피해를 남겼다. 콜레라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물려드는 환자들을 수용할 공간과 치료할 의약품의 부족으로 아이티는 현재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플랜 아이티의 콜레라 발병 대응팀은 급속한 확산에 따른 구호물품의 배포, 위생시설의 복구 작업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콜레라 예방과 치료법 교육, 올바른 위생의식 캠페인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강력한 콜레라의 위험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유럽연합과 플랜의 한 목소리

UN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11월 20일 세계어린이 날을 맞아 플랜과 유럽연합이 파트너가 되어 아동권리향상과 참여의 확대를 위해 세계어린이의 날 행사를 가졌다. 플랜은 아동권리를 높이고 참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확대시키기 위해 I have a voice 캠페인을 통해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세계어린이 날을 맞아 유럽연합의장국인 벨기에의 플랜 청소년 단체들은 그간 I have a voice 홈페이지를 통해 모아진 전세계 어린이들의 목소리를 유럽연합 국가들에게 전달하였고, 브뤼셀에서 열린 뮤직페스티벌에 약 8백 명의 어린이들을 초대해 지구촌 어린이들을 대변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럽 안팎의 많은 어린이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유럽연합의 정책이 아동권리향상과 참여의 확대를 증강시킬 수 있도록 플랜은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폭력없는 학교생활을 향한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의 달리기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플랜에티오피아 어린이 육상대회가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서 개최되었다. 플랜의 Learn Without Fear 캠페인의 메시지가 쓰여진 티셔츠를 입은 3만 5천여 명의 어린이들이 대회에 참가했고,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네덜란드, 스페인 등의 육상선수들이 함께 지리했다. Learn Without Fear 캠페인의 목표달성을 위한 지역사회와 언론의 책임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개최된 어린이 육상대회는 10년 전 에티오피아의 국가대표 육상선수 Haile Gebresilase가 설립한 아프리카 최대의 대회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큰 경기인 Great Ethiopian Run에서 비롯됐으며 올해로 두 번째 대회를 맞았다. 현재 에티오피아의 학교에서 행해지는 차별과 괴롭힘, 성희롱 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신체적 차별과 폭력이 만연한 에티오피아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플랜은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플랜과 함께아는 분들 / 일시후원금, 긴급재해 후원금, 모금함, THE 좋은선물, 특별후원금

일시후원금				모금함	
가나안 어학원	100,000	유재성	400,000	파키스탄 성금	
가짜성당물뜨레아	23,000	윤다혜	300,000	고효상	100,000
강윤경	10,000	은행자	5,000	권은지	50,000
강학순	300,000	이경아	30,000	박천서	5,000,000
고미영	100,000	이영미	10,000	서이름	30,000
김민	50,000	장성환	100,000	송미라	20,000
김민후	620,000	전철호	53,500	신동화	100,000
김한솔	11,111	정아임	10,000	오승수	100,000
대령 김진기 외 8명	200,000	정천중	50,000	이미애	100,000
박영진	20,000	주순희	50,000	이소연	30,000
박중수	300,000	최다운	50,000	이지형	1,000,000
박훈	20,000	태영건설 마라톤 동호회	430,000	지정은	20,000
신대룡	100,000	홍다겸	100,000	최민우	250,000
신승현	30,000	황재현	300,000	최용진	60,000
안양벌말초아람단	45,730	황정원	50,000		
여은정	30,000				
				온라인 모금 (9월~11월)	
				해피빈 콩	2,954,700
				싸이월드 도토리	94,900

모금함 신청 02) 545-4628

THE 좋은선물 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2010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THE좋은선물과 함께 하신 분들

이경호, 스파게티아클래스코신도림, 김혜성, 이경호, 김혜린, 한지혜, 이윤관, 정성식, 유정희, 이호연, 이수연

[문의] ☎ 02)790-5436 / E-MAIL : kno@plankorea.or.kr

현재까지 모금액 (2010.11.30 기준) 15,884,513원

네팔 염소 보내기	2,750,000원
수단 양 보내기	5,575,413원
캄보디아 어린이 도서판 짓기	7,559,100원

*6월 말까지 보내주신 네팔 염소보내기의 후원금으로 염소보내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성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특별후원금

그레이스 하은 원	경기도	평택시	강은정	서울시	동작구	차은경	서울시	광진구	(주)바호코리아	서울시	서초구	박두나	경기도	안양시
피버 사랑 원	경기도	평택시	송은진	서울시	동작구	최원우	서울시	이기발	경기도	용인시	김소은	경남	김해시	
국혜신	서울시	마포구	김준하	전라도	목포시	나재원	서울시	노원구	박홍열	전북	황혜진	서울시	중랑구	
윤경미	전라도	목포시	구정희	인천시	계양구	서명숙	인천시	남동구	정은영	경기도	부천시	김용남	충성군	
문정남	서울시	양천구	하지민	서울시	강북구	이항규	서울시	강서구	이종규	경기도	부천시	김권광	경기도	의정부시
김태연	부산시	해운대구	고영민	부산시	연제구	최화선	서울시	강남구	신정	부산시	김진우	충남	부여군	
박민수	부산시	수영구	김수진	경기도	안양시	정소영	서울시	금천구	최경록	서울시	김정민	전남	담양군	
박선영	울산시	남구	이민우	경기도	부천시	김주영	경기도	고양시	이민경	서울시	서초구	이하나	대구시	송파구
최광일	경기도	광주시	민진주	경기도	의정부시	김아성	광주시	서구	조민경	경상남도	김사범	경북	말곡진	
신선미	대구시	수성구	윤주희	부산시	연제구	김민수	부산시	진해시	김보경	전북	김혜시	서울시	송파구	
최나영	경기도	안양시	임재민	서울시	마포구	김혜영	서울시	금천구	김아현	부산시	부구	경기도	고양시	
윤수진	충북	충주시	나눔4기	경기도	고양시	김국재	인천시	남구	이지희	충남	천안시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여름소식지 누락 후원자	박수화	경기도	백우영	경기도	류희량	경북	신상현	전라도	유창민	서울시	박훈민	서울시
김미자	경남	김태연	부산시	박수진	경북	강민철	서울시	김이경	경기도	김재원	서울시	김다린
남은택	경남	김윤경	대전시	장재영	대전시	최화선	인천시	전우범	경기도	조희정	인천시	김한솔
김정민	경남	김은택	서울시	최부선	인천시	한애남	광주	김가영	서울시	김종정	서울시	박민정
김지안	경남	유미경	서울시	정인영	경기도	김지수	충북	김미선	제주도	박윤국	서울시	박건일
대구시	대구시	이영미	서울시	김지윤	서울시	최찬우	대전시	이창룡	경기도	김용국	부산시	김선주
박영희	경남	이상한	서울시	정진우	서울시	최준우	서울시	박지현	서울시	김우현	경북	이은경
박예봉	서울시	이해순	서울시	김혜숙	부산시	유주연	부산시	김태국	서울시	김석경	경기도	전명재
류강희	강원도	최근식	강원도	김예빈	서울시	이정진	서울시	박범욱	충북	이주영	경기도	이근백
김중기	부산시	권지은	부산시	신유규	부산시	박지민	경기도	이도윤	서울시	김보현	서울시	이민지
김희남	부산시	박재성	경남	산유환	제주도	오정환	인천시	조경서	전북	이정준	서울시	강혜숙
김태훈	서울시	유지연	경기도	김도희	서울시	김도희	대전시	김보라	광주시	서지중	서울시	최애소
김영선	부산시	정웅진	경기도	이소연	서울시	이소연	서울시	이미영	인천시	김가희	경기도	서해경
오유미	서울시	장선희	경기도	백운상	서울시	백운상	경기도	김현아	서울시	곽של	경기도	김동욱
김선덕	서울시	김은희	경기도	김선정	부산시	김선정	경북	김한나	전북	이병선	서울시	박안나
김원자	경기도	김미희	경기도	조한재	서울시	서정현	부산시	김예진	서울시	김보경	서울시	이은화
고연호	경남	김은숙	경남	유재은	대구시	박지은	대전시	서예슬	전북	김준경	서울시	김지용
김현숙	서울시	김은수	울산시	조서은	인천시	정수영	전북	추지우	대구시	이은우	서울시	김지용
김인차	서울시	김현정	인천시	김예스더	경기도	박희영	서울시	배대식,곽진영,배지현	대구시	이은우	경기도	윤정희
김정숙	서울시	유니영	경기도	최아영	광주시	박희희	부산시	홍혜령	부산시	서라경	서울시	장기영
김인차	인천시	김은아	서울시	이은아	서울시	이희준	경기도	서유민	경기도	이승희	서울시	정가을
주정은, 주남중	경기도	전현진	서울시	김소영	서울시	김소영	경기도	홍유준	경기도	신정환	경북	정지연
윤서민	서울시	송재성	경기도	유승영	충남	정종환	서울시	김미영	강원도	이은로기(김주)	서울시	한규우
이윤근	경기도	문지수	서울시	양현성	경기도	이서연	서울시	김기홍	서울시	송미리	서울시	김연애
김민혜	충남	이홍선	경기도	권태현	서울시	유미아	대구시	김예림	서울시	김민희	인천시	장경미
김민성	서울시	임영욱	충남	최희정	광주시	정지정	서울시	박지민	서울시	정성택	서울시	김정은
염승철	충남	박호정	서울시	최재호	서울시	김미경	경기도	서정민	대전시	김중대	충남	이현정
김영민	대전시	배은정	경기도	박희수	서울시	김미영	인천시	채소호	경북	김영균	충남	강민주
정민자	경기도	윤상훈	서울시	김현지	서울시	고현정	광주시	김범중	부산시	김봉준	충남	한호정
정은자	경기도	권영주	부산시	박수빈	대구시	홍유주	서울시	최희정	대전시	이혜순	충남	오기순
이지은	충북	김미연	경기도	조경희	서울시	이영희	서울시	김수정	서울시	박지연	경기도	김혜미
함혜지	대구시	황인용	대구시	김희미	대구시	김고현	서울시	윤수연	서울시	박정민	울산시	장기덕
김은라	경기도	한보미	경기도	조은지	경기도	이지수	대구시	홍승아	서울시	서지연	경북	강희숙
김미라	서울시	박희종	충북	김성현	서울시	최영숙	울산시	유민식	서울시	유재준	서울시	류원진
이정선	경기도	한남영	강원도	김성진	서울시	조영훈	경기도	한창수	광주시	안성원	경기도	최은정
박지현	서울시	정승인	서울시	김대연	부산시	서지영	대전시	홍원진	서울시	서우정	서울시	최영준
선소희	서울시	김인숙	경기도	정수남	부산시	정민정	대전시	정우영	인천	배정원	경북	강요람
박윤경	울산시	이은정	서울시	신은진	경북	최용정	울산시	윤소연	서울시	서유진	서울시	장기훈

2010년 신규 후원자 번호순으로 게재하였습니다. 후원에 동참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규 어린이 결연 후원자

최재배	경기도	김창수	서울시	최미선	서울시	최진수	경기도	김승철	서울시	부산시	추두원	경기도	윤종호	서울시
이재원	서울시	김재영	경기도	정민우	경기도	안천시	안천시	박철우	경기도	서울시	이동욱	서울시	안지연	서울시
안기현	경기도	우진우	서울시	이현주	경기도	경기도	경기도	박종립	서울시	경기도	송득영	서울시	손무현	서울시
고수진	서울시	황윤	서울시	김미희	서울시	안천시	안천시	박동현	서울시	경기도	김영찬	서울시	배승호	서울시
김태근	경기도	김은진	서울시	김종근	경기도	서울시	서울시	김상태	경기도	서울시	서오영	서울시	홍보람	서울시
김나은	서울시	이연나	서울시	성승옥	서울시	경경구	서울시	송준삼	경기도	서울시	김성범	서울시	신지혜	경기도
고지은	인천시	안윤희	경기도	홍수진	서울시	경기도	경기도	최우경	경기도	부천시	최은범	서울시	김다영	경남
송수성	경기도	강근균	서울시	전혜정	서울시	경기도	경기도	장상혁	인천시	서울시	이종진	서울시	김은석	서울시
노효선	부천시	이승민	서울시	이창무	서울시	부천시	부천시	이상수	경기도	서울시	이상준	경기도	장민석	서울시
이성원	경기도	정해문	대전시	김민아	서울시	박재민	서울시	정일훈	경기도	서울시	문갑기	서울시	김정경	서울시
이대연	경원도	소지복	경기도	백승우	인천시	박준민	인천시	전성배	대전시	서울시	고정훈	경기도	문호현	경남
임선영	서울시	권재현	경기도	이승민	서울시	박정남	서울시	주성돈	서울시	전북	김상엽	서울시	소재준	서울시
김만순	인천시	이동혁	경기도	조혜미	서울시	원현오	서울시	대승욱	서울시	경기도	이규상	경기도	김실화	전북
임태호, 김송지, 임세율	서울시	김필교	대전시	이병연	대전시	주치연	대전시	김영호	대전시	경기도	김영호	서울시	김철만	경남
유수환	경기도	홍은아	대전시	장미	경북	문준섭	경북	안상근	서울시	서울시	신원호	서울시	한윤진	경기도
박슬입	서울시	이희영	강원도	박광계	경북	이종우	충남	서상현	대전시	서울시	박필기	서울시	원희진	서울시
정규환	경기도	인혜진	경기도	권혁중	충남	이우하	충남	신태식	서울시	서울시	최원중	경기도	반효진	경기도
김수현	인천시	윤은희	경기도	박우영	서울시	최우현	서울시	김시균	울산시	울산시	전우연	대전시	이지연	부천시
박민진	서울시	김교령	서울시	이연주	서울시	손우혁	부천시	이시권	경기도	서울시	신명섭	경기도	박석진	경기도
최희정	서울시	이희화	경기도	홍복	충북	박재홍	경기도	강승구	경기도	서울시	이성철	서울시	구나희	경기도
홍길수	경남	장주준	경남	김봉수	경기도	이준순	경기도	유석현	서울시	서울시	최우영	서울시	정지현	광주시
한주열	서울시	조소희	서울시	이은재	서울시	이연수	경기도	박영수	서울시	서울시	안영영	서울시	권경호	경남
최연채	대구시	전병만	대구시	서을	서울시	박재원	서울시	김일복	서울시	경기도	이희진	서울시	임민식	서울시
정현진	서울시	한민성	강원도	서희희	서울시	정수장	경기도	정영선	경기도	서울시	최성근	경기도	부기성	서울시
김보미	서울시	김상구	충북	김태훈	경기도	김수식	경기도	강성원	경기도	경기도	송윤호	경기도	김진익	부천시
유혜진	Germany	박문석	충북	이은경	경기도	김지태	충남	최원호	인천시	서울시	김기호	경기도	이지현	경기도
김갑삼	경기도	박원복	경기도	김의환	충남	이우동	충남	손원익	인천시	서울시	이흥호	경기도	유현경	서울시
남태진	대구시	강진규	서울시	윤지태	경기도	박재준	경기도	안병훈	서울시	경기도	안병훈	서울시	임선복	서울시
한희희	경기도	오미경	서울시	김희중	대전시	최희중	대전시	황보현	서울시	경기도	황보현	서울시	박해성	경기도
이연성	경남	김지연	광주시	문미자	서울시	문정환	서울시	진봉호	경기도	서울시	이유준	경기도	최재덕	경기도
김소민	서울시	고아라	서울시	이영민	경북	이영민	경북	이부연	서울시	대구시	김영진	서울시	구가희	경기도
박해경	서울시	조정원	서울시	김철	경기도	이영민	경기도	이재혁	서울시	대구시	김영진	서울시	선우영	경기도
최재성	경기도	유연희	경기도	김해주	서울시	노정수	서울시	홍보라	서울시	경기도	김영길	서울시	김우영	인천시
이소주	경기도	나윤정	충남	김창하	서울시	윤창호	서울시	임상묵	경기도	서울시	전혜문	서울시	문혜진	경기도
이혜민, 박필준	인천시	김남호	서울시	이민하	서울시	김준현	서울시	한상영	서울시	서울시	박하나	서울시	마정지	경기도
박순창	경기도	신지영	경기도	박정화	경기도	전준호	충북	김승업	충북	충남	조희경	경기도	구승희	인천시
김은경	경기도	변은희	서울시	이은호	서울시	이준성	울산시	임수진	경기도	서울시	이혁한	경기도	편재원	경기도
오소빈	대전시	김홍중	서울시	김해린	서울시	양준호	울산시	배소은	경기도	서울시	안희재	경기도	윤한희	인천시
김슬비	서울시	김준수	서울시	이가연	서울시	박지영	서울시	안소라	경원도	경원도	신진재	경원도	이동희	경남
제원영	인천시	김진경	인천시	홍수진	인천시	서지영	서울시	권성원	서울시	서울시	김호환	경원도	유승훈	서울시
이소망	전북	김우림	광주시	한명주	서울시	정영선	서울시	김정현	경원도	서울시	김호환	경원도	최수연	경기도
최영실	인천시	황혜성	서울시	한세우	서울시	이주연	인천시	윤성수	부천시	서울시	류종우	서울시	김은주	경기도
김봉영	인천시	문보현	서울시	김은혜	서울시	정주연	서울시	박사음	경기도	서울시	김현모	서울시	김준호	대전시
이영희	경남	오주희	서울시	이강운	서울시	이지연	인천시	이성태	서울시	서울시	최해문	서울시	문영식	서울시
이수정	울산시	유현민	서울시	김재은	서울시	김재은	서울시	전서빈	충북	전북	최용재	강원도	안명식	서울시
이은정	서울시	이경혜	서울시	최소정	서울시	강성구	부천시	안성필	서울시	경기도	홍정석	서울시	박명선	부천시
조수미	서울시	이병우	경기도	최미향	경기도	강영구	경원도	한성도	서울시	경기도	황현호	경기도	박영선	서울시
이기연	부천시	박재민	울산시	박희정	울산시	김병주	인천시	최성호	서울시	서울시	나성호	서울시	김수현	서울시
김신영	서울시	김민정	서울시	유오영	서울시	안영근	서울시	김해선	서울시	서울시	김해선	서울시	이지수	대구시
홍지미	부천시	정지희	경기도	김준수	경기도	홍성수	경기도	여성수	경기도	서울시	홍택희	서울시	이한솔	충북
신경준	경기도	이은정	경기도	조우나	경기도	진복	전북	이진선	경북	인천시	이정현	경기도	신병아	경기도
이연경	부천시	이현정	서울시	이수택	서울시	곽규환	인천시	이상원	인천시	인천시	김정현	경기도	정찬경	서울시
이은수	경기도	송하린	서울시	전희호	서울시	김도진	경기도	예병용	경기도	서울시	신영미	서울시	배영준	경원도
김태양	서울시	이성현	경기도	이정운	경기도	김진수	경기도	심병섭	경남	서울시	김영미	서울시	이선기	서울시
정민희	서울시	백선영	경기도	김진규	경기도	정규주	서울시	김병수	서울시	부천시	유성열	서울시	영해원	서울시
백강오, 권태희	서울시	김호진	경기도	윤진영	서울시	주정환	서울시	최윤철	서울시	미국	신영열	경기도	조현정	서울시
김보민	서울시	김지선	경기도	남원동	경기도	노경식	경북	김성준	경기도	경기도	김영조	경기도	이석현	경기도
박선화	서울시	최지은	경기도	김도형	경기도	최호신	경북	정덕희	서울시	서울시	정덕희	서울시	조성현	서울시
김태영	경기도	민유자	인천시	김민강	인천시	백기연	서울시	최철환	서울시	서울시	김영선	서울시	이기오	경기도
정진경	경기도	김영진	대구시	김영림	서울시	김근호	서울시	임주혁	경기도	서울시	김영선	서울시	이민영	인천시
박범근	경기도	박창민	충남	김윤호	서울시	김규연	서울시	최재관	경기도	서울시	조용삼	경기도	허은숙	경기도
홍지은	서울시	이지미	충남	김윤호	경기도	김규호	서울시	이은영	경기도	서울시	이은영	경기도	이은서	경북
홍성국	인천시	이훈자	서울시	이성민	서울시	남규훈	서울시	안철민	서울시	서울시	임동기	경기도	유시원	인천시
김민희	인천시	장지혜	경기도	박진우	경기도	조광영	서울시	한철민	경기도	서울시	조광영	서울시	김도연	서울시
김동욱	경남	김인영	인천시	추연	경기도	민경만	인천시	김영택	경기도	대구시	이기환	서울시	김승태	경기도
이복성	부천시	황현순	서울시	정지영	서울시	조경석	서울시	김민택	경기도	경기도	김민택	서울시	문상재	충남
고홍세	대전시	이인혜	대구시	김정영	서울시	김정영	서울시	윤자영	서울시	서울시	안현욱	서울시	김소희	인천시
이유지	서울시	이영은	전북	강순하	경북	김규선	서울시	이창열	서울시	서울시	김해배	서울시	신경아	경기도
최미경	경기도	위지민	서울시	강순석	인천시	김순석	인천시	신동현	인천시	서울시	배희호	서울시	김진일	경기도
최미진	충북	김민희	경남	이찬근	경남	이창근	경남	최대홍	충남	경원도	우하영	경원도	김신영	서울시
최유선	경기도	홍영진	서울시	신우정희	서울시	이재혁	서울시	유동열	경남	서울시	박해진	인천시	이경춘	서울시
문성환	서울시	조성진	전북	김유선	경기도	이병필	서울시	남상욱	서울시	서울시	권혜영	서울시	김여복	경기도
김수지	대전시	곽연정	서울시	이성필	대전시	이상필	대전시	김상영	서울시	서울시	김해영	서울시	이만복	서울시
한규환	인천시	이영관	서울시	이영훈	서울시	이영훈	서울시	신승운	충남	서울시	정혜영	서울시	박소연	부천시
김수연	경기도	안선순	서울시	김희정	경기도	이상수	경기도	강재영	경기도	경기도	이형재	서울시	신혜정	서울시
이재희	부천시	전영미	경기도	이소라	경기도	이용수	경기도	김태운	충북	서울시	배현덕	서울시	정재철	경남
박규서	경북	함길지	경기도	우재석	경북	류재홍	부천시	김태운	경북	서울시	정현석	서울시	이영선	서울시
장재라	경기도	박진하	경기도	이정일	경기도	이대호	서울시	김태연	경기도	서울시	김현선	서울시	김희원	경북
김소영	경기도	송수영	서울시	김우식	서울시	정영호	경기도	조대환	경기도	서울시	조대환	서울시	김희원	서울시
윤고은하나	경기도	김연득	부천시	황승연	인천시	박민진	인천시	이도원	서울시	서울시	김영일	경기도	김향균	경기도
권용환	경기도	윤재찬	서울시	김지훈	서울시	정민우	서울시	이성규	서울시	서울시	정말규	서울시	서우진	서울시
김미아	경남	최형도 & 김동선	경기도	김철수	서울시	하민희	서울시	김미혜	인천시	인천시	김미혜	인천시	이민애	서울시
유복선	부천시	오혜선	서울시	전택수	서울시	정민경	경기도	김태연	경기도	서울시	김태연	경기도	이주영	서울시
정성숙	서울시	김수영	대전시	배준철	경기도	정민택	서울시	한태영	서울시	서울시	정태영	서울시	정희희	서울시
성경선	서울시	신태우드(소재운)	서울시	정재은	서울시	임상환	서울시	김상동	서울시	서울시	김상동	서울시	오우진	서울시
양정은	인천시	한서용	서울시	서정기	서울시	홍미진	서울시	오우진	서울시	서울시	오우진	서울시	이수정	서울시
이승희	대전시	김윤경	경기도	이정성	서울시	강태하	서울시	김연재	경기도	경기도	김연재	경기도	이정현	서울시
박수정	충남	이윤정	서울시	홍재홍	경기도	조윤영	서울시	이할영	서울시	서울시	이할영	서울시	이시연, 이경원	서울시
김문현	대구시	김재필	부천시	전준호	서울시	김이령	서울시	신왕수	경기도	경기도	신왕수	경기도	전성미	서울시
오희진	경기도	장형철	서울시	신진하	경기도	김미숙	서울시	이상진	서울시	부천시	이상진	부천시	박보람	서울시
박혜진	대전시	임예원	인천시	김지은	경기도	정문우	서울시	원종규	서울시	서울시	원종규	서울시	전영경	서울시
이정민	광주시	김종대	서울시	이희현	인천시	서민우	서울시	김동민	경기도	인천시	김동민	인천시	원진경	경기도
이신미	경기도	김윤주	대구시	현진	대전시	서민우	서울시	이동욱	서울시	부천시	이동욱	부천시	유승준	서울시
류성환	경기도	이하나	전북	박진환	경기도	김연옥	서울시	김동욱	경기도	서울시	김동욱	서울시	김두환	서울시
장수연	서울시	이재식	경기도	이진석	경기도	오종석	인천시	송도훈	부천시	서울시	송도훈	서울시	서지은	경기도
박건호	인천시	국대명	서울시	전진수	서울시	이종현	경기도	안도현	서울시	경기도	최수수	경기도		



PROGRESSIVE

progressive